

장미의 아치

소설가 · 김채원



정원에 장미의 아치가 있는 이층으로 된 벽돌집은 내가 파출부로 다니는 집입니다. 남편이 굴삭기를 몰다가 척추를 다친 후로 나는 이집 파출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출부 일을 하는 이웃 여자를 따라 직업소개소에 신청을 하고서 걸린 첫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여러 집을 다녀 본 후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야 된다고 경험있는 이들이 말합니다만, 나는 제일 첫날 일하게 된 집에 그냥 눌러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집이 소위 파출부들이 말하는 어느 정도의 등급인지 나로선 알 길이 없으나 주인 아주머니가 꽤 무던해 보였고, 또 무엇보다 이 집에서 내가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집이 너무 넓어서 사람이 붙어있질 않아요. 두달 있으면 잘 있는거지』라고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이 너무 커서 청소하기만도 오전시간 전부가 허비되었습니다.

첫날 부지런히 청소를 하다가 이층 테라스에서 문득 내려다 본 정원의 장미 아치는 웬지 모르게 슬펐습니다.

나는 한동안 전기 청소기를 집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높다란 담 안에 잘 손질된 정원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내가 슬픔을 느낀 것은 저 밑에서부터 갑자기 끓어오른 알 수 없는 분노,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뼈빠지게 일해야야 이런 쾌적한 아름다운 순간이 찾아

올리 없다는 비참함 때문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 보다는 내가 잘 해야될 수 없는 내 안에 잠재해 있던 다른 무엇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람인 나, 특히 여자인 나 자신에 대한 생래적인 고독감이라 할지.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어린시절 이외에 내 생애 처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러 집을 거치지 않고 그 집에 그대로 있으려고 마음 정한 것도 실은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체험 때문이었을 확률이 큼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 일이며 아이들 도시락을 챙겨 보낸 후 급히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자연히 남편의 시중은 뜸해지게 되었지요. 나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차라리 잘 된 일인지 모른다, 편히 몸조리나 하다가 이 기회에 직종을 바꾸는 것도 좋다, 굴삭기 조종은 이제 당신에게 무리라고 토닥거리 주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때부터가 굴삭기에 대한 회의론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땅을 밀어부치고 건물을 거칠게 부수어내고 하는 일들이 그의 성격에는 어딘가 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푸른 들판을 갈아부칠 때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공해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푸름 그 자체가 좋아보이기만 하니 나도 이제 나이가 드는가봐.』라고 그는 말했었지요.

남편은 지쳐서 돌아오는 내가 안 되었는지 시장을 봐 놓기도 하고, 세탁기에 빨래를 넣어 놓는다든가 지척을 지어 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인가부터 남편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짜증을 내기 시작했나 봅니다. 아무래도 내 몸이 고달팠고, 남편은 척추의 통증과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한 탓이죠. 나는 그런 남편이 안되었으면서도 무슨말인가 하면 쏘아부치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니 문이 잠긴 채 남편이 없었습니다. 나는 밖에서 두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문을 뜯어보려고도 했고, 창을 넘어보려고도 했습니다만, 연립주택의 문들은 의외로 견고했습니다. 거기다 비까지 오기 시작하는 거 였어요. 꼬박 두 시간을 밖에서 기다린 후 남편은 술에 만취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물론 대판 싸웠지요. 그후 서로 말을 안 했습니다.

어느날 기운없이 멍한 표정인 나를 보고 주인아주머니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주인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오늘 아줌마도 술을 한잔 마셔, 자 내 앞에서 남편한테 전화 걸어, 나도 술이 먹고 싶으니 술 한잔 사달라고 해, 그래서 술 마시며 서로 말끔히 풀어버려』하며 아주머니는 무선전화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주저스러웠지만 얼떨결에 아주머니가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남편은 내 목소리를 듣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그 집 일을 어떻게 끝마쳤는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구멍가게에서 맥주를 한 깡통 사서 마셨습니다. 처녀 때 친구들과 한잔씩 마셔본 외에 처음 입에 대보는 술이었습니다.

나는 가게 앞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지요.

“전화 끊지 말어, 나 지금 술 마셨어.”

평소와 달리 남편한테 반말로 지껄이며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정신이 핑 돌며 몸은 비틀거렸습니다. 수화기를 올려놓지도 못한 채 전화박스에 기대어 서 있는데, 여보세요 정아엄마, 하며 남편이 나를 찾는 소리가 모기소리만하게 들렸습니다. 점점 사방이 빙빙 돌고 나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전화박스를 꼭 붙들고 있었지요.

한동안 그렇게 있자니까 남편이 나를 찾아 나오는 모습이 전화부스 유리 너머로 보였습니다. 척추의 아픔 때문에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나를 찾아보려 시선을 멀리 두며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을 보자 나는 그만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술 때문도 남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커진 후 처음 경험한 저 장미의 아치를 보던 순간의 체험, 생략적인 고독감, 바로 그것 깨문인 것들 그 당시는 저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

- 김채원은 1946년 경기도 덕소에서 태어나 1975년 「밤인사」로 『현대문학』에 등단했다.
- 「달의 몰락」 「초록빛 모자」 「봄의 환」 등의 작품집이 있다.
- 언니 김지원과 자매집 「먼집 먼 바다」 「집, 그여자는 거기에 없다」가 있다.